



3면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음 3월 8일) 제325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 행사가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등 한·중·일 개최도시 대표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주, 동아시아의 찬란한 자산'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개막식

중국 청두·메이저우, 일본 시즈오카 등과
한중일 개최도시 전통·문화정신 공유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천년문화도시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를 이끄는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대장정에 돌입했다.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개막식 행사는 전주시와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청두·메이저우시, 일본 시즈오카현이 올 한 해 활발한 문화교류에 나서는 첫걸음을 떼는 자리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리강 중국 청두미디어그룹 이사, 차오동 중국 메이저우시 부지사, 이데노 츠토무 일본 시즈오카현 부지사,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윤덕·강성희 국회의원, 백범을 한중일협력사무국 사무처장,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총영사, 기존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어린이 합창단과 전주시립국악단이 함께 준비한 공연으로 문을 연 이번 개막식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중국과 일본의 대표단 단장들이 축사를 통해 각각의 도시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대형 방패 연에 각 도시의 대표들이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화합의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를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뒤 이어 각 도시의 문화를 일리는 전통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먼저 중국 청두시는 영상을 통해 최초의 무용인 '무운천부'를 소개해 하늘의 공간이라 불리던 '천부문화'의 매력을 알렸고, 중국 메이저우시는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광동 3대극 중 하나인 '광동한극' 작품으로 광동 한국전승연구원의 '남국모란의 향기'를 선보였다.

일본 시즈오카현은 시즈오카현 공연 예술센터(SPAC)의 공연단이 작곡 미호의 마쓰라비에 전해지는 날개옷의 전설을 소재로 한 연극 공연을 펼쳤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전주 시립국악단과 전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보이그룹인 라스트포원이 함께 '이리랑'을 재해석한 합동 공연을 펼쳤으며, 화합과 통합을 통한 전주의 희망을 노래하는 '전주의 새 아침'과 '한바탕 전주' 공연 등을 선보이며 전주만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초대 가수 에일리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개막행사 둘째 날인 오는 27일에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동아시아 영화특별전'을 통해 한·중·일 지방자치단체의 영화 제작 지원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동아시아 영화 포럼'이 진행된다. 또, 전주 국제영화제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5월 6일까지는 한·중·일의 3국의 특색을 담은 영화 상영이 예정돼 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내해에 무인로봇·수상선 성능 시험장 조성

도, 해수부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공모 선정... 총 480억원 투입

새만금 내해에 무인로봇, 무인수상선 등 해양수중이동체의 성능 신뢰성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시험장이 조성된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공모사업 중 내해 실증시험장 구축 및 성능검증 시스템 개발에 전

북도가 선정됐고, 위해 기반 통합시험장 구축 및 시험평가 체계 기술 개발에는 경북도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 무인시스템의 객관적인 시험·평가체계 기술 개발과

운용 성능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내해와 외해의 윈스톱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산 해양장비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경북도, 군산시, 포항시, 선박해양플랜

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며,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4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공모로 전북도는 내해 실증을 위한 실해역 시험장을 군산시 옥도면 아미도 인근 내해에 구축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 운용을 통해 시험·평가기술을 개발해 수중 건설로봇, 무인수상선 등 국산 해양 무인기 및 수중 음향·통신기술 등에 대한 실증을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26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라북도 신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국주영은 도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권기봉 한국노총전북본부 의장 등 참석자들이 공동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

도·노동계·경영계 등 5월 1일 근로자의 날 앞두고
노동자 존중·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결의

전북도와 도내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등이 노동자가 존중받는 전라북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신(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결의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상생 공동선언식에는 전라북도 노사정을 대표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총연맹 위원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회장의 회장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군산지청장 익산지청장 등과 도내 14개 기업 노동조합 및 기업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김관영도출범하면서,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 인구감소 → 생산감소 → 소득감소 → 소비위축 →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전환점을 만들고자 노사단체들과 수차례의 협의 끝에 노사정 상생 선언을 추진하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특별자치도로 변모하는 전라북도에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북도 민의 상생의 노사정 문화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